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그저 평범한 마을 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셀 수 없을 만큼의 수 많은 사람들이 뒤 섞여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부산 해운대에라도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동네 마당에서 뛰놀거나 수영을 하고, 주민들은 이곳 저곳에서 불을 피워 함께 음식도 만들고, 군데 군데 작은 우리들이 함께 둘러 앉아 웃고 떠들고, 또 한편에서는 노래 한마당이 펼쳐있고, ... 이 모든 것이 제가 살아왔던 동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어서 정겨운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온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느낌을 줍니다.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또 하나의 '땅 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작은 해변 교회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다가 간 적이 없는 이 해변 교회가 마침내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토요일 어린이 성경 학교를 통하여 이곳 많은 어린이들과도 새롭게 친해 졌지만, 특히 이들의 부모들과도 많이 가까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저들 부모의 마음을 열어 주는 주요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이들과 젊은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 축복하는 '마노뽀' 또는 '아민'이라는 오래된 카톨릭 전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마을에 들어 설 때마다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 많은 아이들이 저마다 저희들의 손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이 '마노뽀'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어린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모들이 행여나 자신의 아이들이 저희들의 '마노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멀리서 놓고 있는 아이를 불러서 저희의 앞으로 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저희들을 선교사로 부르고 또한 이곳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직접 더 가까이 다가 가서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밖을 나와서 일일이 이들과 접촉을 하며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저희들이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 가서 아직 서투른 이곳 말이지만 안부를 물을 때면, 장황하게 열 배 이상의 말로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 줍니다. 한 때 한국인 남자와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한국 이름까지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니는 저희들을 볼 때마다 고향 사람을 만난듯이 반가와 합니다. 매주 토요일 성경 학교에 아이들을 빠짐없이 보내지만, 정작 본인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공연히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누구 보다도 저희들의 최우선 전도 대상자입니다.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가정도 작년에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다가 금년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평상시에는 제대로 웃도 입지 않고 지나는 아이들을 깨끗이 씻겨서 보낼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늘 얼큰하게 술을 마신 모습인데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를 대해주며,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고 하며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해 합니다. 항상 지친 표정으로 있는 한 아주머니는 안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관심을 표할 때마다 한 마디도 알아 들을 수 없는 수 많은 이야기들을 혼자 말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주의 사랑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공활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활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호 2:23)



특히 이번 고난 주간을 기다리며 마을 사람들을 향한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소수의 믿는자만의 예배가 있었지만, 이번 성 금요일에는 교회 앞, 동네 한 가운데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마을 책임자에게 야외 집회 허락을 받았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이 이 마을에 선포되어 지기를 기도함은 물론이고, 안전과 좋은 날씨와 정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오후가 되어서 교회 의자들을 교회 밖 마당 가운데 배열을 하고, 영화 상영을 위하여 교회 벽에 흰색 천을 붙이고,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 했습니다. 낮이 익은 정다운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마을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의 인도로 준비한 찬양을 힘껏 같이 부르고, 한 장년 남자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곳의 생활과 꼭 부합되는 간증 이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목이 쉴 정도로 얼마나 큰 소리로 간증을 했는지 사용중인 오래된 앰프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앰프가 작동되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달도 어렵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화 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지경 이었습니다. 이때 교인 중에 한 분이 지혜롭게도 동네 가라오케용 앰프를 빌려 가지고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회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어둠이 짙어질 무렵 교회 벽에 설치된 흰색 천에 프로젝터를 통하여 'The Crossing' 이라는 영화를 상영 하였습니다. '죄', '사망', '심판', '십자가', '구원' 등의 내용을 현지어로 녹음을 한 30분 가량의 영화입니다. 모두들 심각하게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최근에 해변 교회에 부임한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 선포와 결신자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신자 초청이라는 엄청난 일을

놓고 사전에 이를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였지만, 사실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들을 향한 최초의 영적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아무런 저항없이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말씀을 따라 결단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지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하며 주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결단이 이들의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저희들의 사랑의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작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드디어 우리 주님께로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석한 마을 주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현지어로 제작한 전도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계획한 모든 순서가 끝나고 소박하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제1회 마을 복음화 집회를 은혜스럽게 마치었습니다.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이곳 '아그다오 라낭 크릭' 해변 지역에 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시 118:25)**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